

아 하얼빈!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
남광주농협 사외이사



올해는 푸른 뱀띠 해로 을사년(乙巳年)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20년 전(前)인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

어쩐지 '을사년'이라고 하니 학창 시절 역사시간에 많이 들어 익숙한 기억이었다.

이때 나라를 일본에 강제로 넘기는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찬동했던 을사5적(敵)을 우리는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으로 칭한다.

이들은 모두 지금의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것이다.

당시 일본대표가 막무가내로 합방을 강요한 '늙은 여우' 또는 '늙은 늑대 우두머리'에 비유한 약령 높았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다.

우리말에 날씨가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는 '을씨년스럽다.' 는 말이 있다.

어원이 바로 을사늑약으로 당시 백성들이 몹시 혼란스럽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로 많이 슬프고 실망스러운 언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설 긴 연휴기간 동안 무려 130만 명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 그 중 거의 절반(약 43%)에 해당되는 여행자가 바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뉴스를 보았다.

여행은 개인의 사정과 자유이겠으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계속적인 원전폐수 방류와 타결은 되었다고는 하나 지소미아, 백색국가 해제 등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잔존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 깊고, 우리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문제부도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선수단은 6개 종목 총 223명이 출전하는데 종합순위 2위 목표로 선전을 기대해 본다.

하얼빈시(市)는 중국의 10번째 큰 도시로 인구가 약 1000만명에 이른다.

하얼빈은 본디 고구려와 발해의 우리 영토일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주무대로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가 휘날리는 만주벌판에 위치하며 민족에게 아픈 상처와 동시에 익숙한 지역이다.

요즘 극장가에서 우민호감독 영화 '하얼빈' 이상영 중이다. 영화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7일 동안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리는 영화이다. 대한의군 안중근(현빈 역) 중장의 하얼빈 의거를 재조명한 영화로 성공확률은 매우 낮았고, 수많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성공했던 내용을 그린 영화이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은 짙어 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한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영화의 대사 중 기억나는 대목인데 대한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의 애국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주제가 다소 무겁다 보니 아직 영화 관람객이 500만명을 넘어 서질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영화 제작비가 무려 300억원 정도 투자되었다고 하니 손익분기점(BEP)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 580만명 정도를 극장가로 불러 모아야 한다.

그토록 을씨년스러운 시대의 독립운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보인다.

몇 해 전 안중근의사 일대기와 이토 히로부미 저격과 관련된 김훈작가 장편소설 '하얼빈' 이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뮤지컬 '영웅'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뮤지컬형식영화 '영웅' 이 개봉되어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았다.

한편, 한국전쟁이 치유되기 전(前)인 1955년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도 못 지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장흥군 죽산안씨 문중과 장흥지역유지들이 성금을 모아 '해동사(海東祠)'라는 사당을 짓고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뿐만 아니라 의향(義鄕)·문향(文鄕) 장흥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가 중국취송(旅順)감옥에서 서거(逝去)한 매년 3월 26일을 기하여 참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역만리(異域萬里) 중국 하얼빈에서 순국한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해 서울효창공원 안중근의사 묘는 우리국민 가슴을 아프게만 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안중근 의사 순국일인 3월 26일과 3·1절을 즈음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을씨년스러운 역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社說

민생지원금 보편·균일하게 지급해야

광주시 등 광역도 확대 필요해

경기 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탄핵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움츠러 들고 있다. 대내·외적 악재 속에 '1% 성장'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재정 투입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남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22개 지자체 가운데 10개 시·군이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100만원을 지급한 영광군은 소비촉진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8일 찾은 영광 터미널 시장 분위기는 모처럼 활기가 띠었다고 한다. 설과 추석 때 각각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받은 군민들이 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닫혔던 지갑을 열었다는 평가다. 영광 내부에서는 소비 촉진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민심도 감지됐다. 영광 뿐 아니라 9개 지자체도 군민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 투입을 실행에 옮겼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급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급 금액이 제각각인데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주지 못한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어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겠지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보편·균일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 회복지원금을 광·전남 전체로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제까지 재정건전성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급 당장 시급한 것은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이다.

골목상권은 손님이 뜰 줄 줄고,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지갑을 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들어 올 정도다. 민생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싸움만 일삼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는다면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 기초 지자체가 나서 긴급 추경을 통해 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말보다 실천 의지 더 중요한 국민소환제

이재명 대표 국회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총리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시킨 전례가 있다. 이 대표의 제안과 달리 갈 길은 멀지만 시민 주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는 공감한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부적격한 인사를 유권자가 임기 전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임기 중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능·부패할 경우 시민이 직접 그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민에게 지속적인 정치 참여 통로를 제공해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장점도 있다. 정책 실패나 도덕적 문제 등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21대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소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만 예외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서명 수부터 투표율까지 소환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정파적 다툼의 도구로 변질 돼 되레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높다.

'법 앞의 평등'은 법치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이 대표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취임 전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천금지 조건이나 당선 후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서 체험했듯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에 대한 의지다.

지역신문발전기금 |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 m.jnilbo.com

서석대



공자는 천하의 도덕이 무너지자 붓을 들었다.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으로 이어온 왕도정치가 무너지고 신하가 임금,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세상을 더 방지했다가는 명덕(明德)의 세상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여겨 작심하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역사서를 '춘추(春秋)'라 일컫는다.

공자가 유교 경전 춘추를 쓰자 당대의 폭군들이 떨었다. 그의 붓끝에서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강등되었고 권력의 숨은 악은 그 오명이 만고에 전해졌다. 엄중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공자의 붓끝은 그

'무관의 제왕' 손흥민

손흥민은 올해도 소속팀인 토트넘이 최근 3일간 2개 대회에 탈락하면서 무관의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토트넘은 10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에 1-2로 졌다. 앞서 지난 7일 리버풀과 잉글랜드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2차전에서 0-4로 크게 지며 우승에 실패했다.

이제 토트넘이 우승 가능한 대회는 16강에 진출한 유럽 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뿐이다. 리그 부진에다 FA컵·카라바오컵 탈락으로 우승 도전이 좌절된 손흥민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고 '무관의 제왕'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